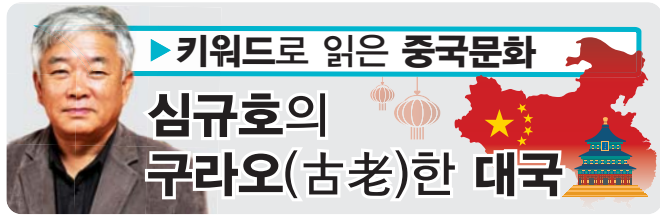


# 말단 귀족이 벼슬 얻는 일보다 힘든 게 제대로 된 선발



## 17. 사(士)와 사(仕)

사(士)는 원래 주나라의 천자와 제후, 경대부 아래 말단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이자 통치계층이다. 통치계층이기는 하나 종실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는 식읍이나 작위가 없어 자신의 능력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고달픈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士), 즉 벼슬을 얻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 서민들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士)는 봉록을 받는 하급관리로 중앙 정사를 보좌하는 원사(元士)와 주로 경대부의 읍제(邑宰)를 맡았던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士), 즉 관직이나 봉록이 없는 사민(士民)으로 나뉜다. 주희(朱熹)는 전자를 '유명지사(有命之士)', 후자를 '무명지사(無命之士)'라고 구분했다.

### 공자 의해 형성화된 '사' 이미지 인재는 부국강병 뒷받침할 자원 제나라 직하에 학자가 1000여명

공자의 학당은 바로 이런 사(士)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사설(私設) 학원이었다. 기존의 학교(명자에 따르면, 하(夏)는 교(校), 은(殷)은 서(序), 주(周)는 상(庠)은 중앙에 상층 귀족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일반인들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설학원에서 하급관리를 집중 배양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귀족 자제를 가르치는 교(敎)목으로 예(禮), 악(樂) (또는 시), 사(射) (활쏘기), 어(御) (수레나 전차 몰기), 서(書) (글쓰기), 수(數) (계산하기) 등 육예(六藝)를 두었다고 하는데, 공자 학당의 경우 도(道)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공무원 사관학교쯤이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기존의 학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누구나 동등하게 배울 자격이 있다. "가르침이 있을 뿐 차별이 없다(有教無類)". ('위령공(衛靈公)') 둘째, 인격수양이 먼저이다. "제자(弟子)들은 집에 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行有餘力, 則以學文)". 셋째, 소인(小人)이 아닌 군자(君子)가 되라.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지킬 것을 생각하며, 소인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 ('이인(里仁)')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된다." 넷째, 분(分) 발하라! "분(分)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아니하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가르쳐주었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를 스스로 깨닫지 아니하면 다시 일러 주지 아니한다." ('술이(述而)') 다섯째, 끊임없이



제나라 선왕의 화상.

제나라 직하학궁 상상도.

이 살피고 반성하며(一日三省), 자신의 행동에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라. "천(天)에 도(道)가 있어 태평하면 나라나 벼슬을 하고, 도(道) 없으면 은거해야 한다. 나라에 도(道)가 있는데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道)가 없는데 부하고 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태백(泰伯)') "돈을 버는 것과 벼슬을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군자는 처하지 않는다. 빈궁과 비천은 모든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수단으로 얻지 않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인(里仁)') 여섯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성취를 위해 학문하라!" ('현문(憲問)')

이렇게 해서 공자에 이르러 '사'는 말단 귀족이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동맹이자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지식인이 되었다. 누구나 '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군자를 지향하는 '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자의 예제자인 안희(顔回)처럼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여 여러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배우기를 좋아한다(好學)'고 스승의 칭찬을 받는 일이 어찌 어렵지 않았는가!

공자에 의해 형성화된 '사'의 이미지는 중국 봉건사회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는 유사(儒士)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유(儒)가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전국(戰國)시대는



제자백가 주요 인물도.

말 그대로 제후국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던 시절이다. 모든 나라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목을 매달았으니 이를 뒷받침할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제후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인재를 조빙(招聘)하고자 애썼다.

"제나라 선왕(宣王)은 문학이나 유세에 능한 사인을 좋아하여 추연( 추(丘)우(丘)공(公)후(後)후(後), 전(田)병(平)마(馬), 접(接)여(予), 신(申)도(道)진(進), 환(環)연(淵)등 76명에게 집을 하사하고 상대부(大夫)로 삼았으며, 관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제나라의 직하(直下) (도읍지 임치(臨淄)의 직문(直門) 인근)에 학자들이 많아져서 천 명을 넘어섰다." ('사기(史記)·전제(田齊)世家')

당연히 유가는 물론이고 묵(墨)가나 법(法)가, 도(道)가, 농(農)가, 종횡(縱橫)가, 병(兵)가 등 여러 학파가 각기 사학을 설립하여 제자를 길러냈다. 이렇게 해서 싱크탱크인 모사(謀士), 전문적인 무예(武藝)집단인 무사(武士), 각국을 종횡으로 누비며 유세(遊說)하거나 문장을 통해 주군을 보좌하는 사인(士人)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 문제 때에 찰거·징벌제도 시행 추천자 주변 인물 천거 등 문제 구품중정제 대체해도 한계 여전

사의 쓰임은 자신의 학식이나 재능을 발휘하는데 있다. 발휘하려면 선택이 되어야 한다. 진시황은 봉건제 대신 군현제를 통한 직접 통치를 시도했다. 자연스럽게 귀족계층이 사라지면서 사(士) 역시 말단 귀족으로서 작위가 없어지고 말았다. 시황제 이전 진나라는 상양(商鞅)이 변법을 시행할 때부터 군공에 따라 관직을 주고 등용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 심지어 '총(宗)실(實) 사람(人)도 군공(軍功)이 없으면 죽(死)에 넣(入)지 않(不)는다.' ('사기(史記)·상(商)군(鞅)열(列)전(傳)')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군공제(軍功制)가 아마도 진시황의 천하 통일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한나라 역시 초기에는 진을 본받아 군공에 따라 후(後)후(後)를 봉(封)하고 관(官)직(職)을 내(任)렸다. 이후 평(平)화(化) 시(時)기가 계속되면서 농(農)사를 지(知)어 거(居)두(頭)어(어)는 양(良)식의 양(良)에



효렴, 수재 등 널리 인재를 구하는 천거를 통해 채용된 등중(等)사가 한무제(漢)의 책(策)문에 대(對)책을 올리(上)고 있다.



공자의 예제자인 안희의 사당인 복성묘(復聖廟).

따라 관(官)직(職)을 내(任)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文帝) 때에 이르러 군(郡)국(國)의 열후(列侯)와 지방(地方)관(官)에게 치(治)국의 재(才)능(能)이 있는 '현(賢)사(士)대(大夫)부(夫)', 즉 "현(賢)량(良)방(方)정(正), 직(直)언(言)경(敬)謙(謙)의(之)土(土)"를 천(天)거(거)하여 주(主)상이 친(親)히 책(策)문(文)策(策)하여 훌륭한 대(對)책(策)으로 받(接)아들(들)어(어)줬(주)다." ('문제(文帝) 15년(前) 조(趙)서(師)')고 하면서 이른바 '찰(察)거(거)舉(舉)' (살(察)펴서 천(天)거(거)함)이라는 독특한 추천(薦)제(制)를 시행(行)했으며, 아울러 보완(補完)책(策)으로 위에서 살(察)펴 선발(選)발(發)하는 '징(懲)벌(罰)제(制)도(도)를(를) 시(施)행(行)했다(다)'.  
찰(察)거(거)나 징(懲)벌(罰)의 중요(重)요(要) 항목(項)은 효(孝)廉(廉)수(秀)才(才) (재(才)능(能)이 우수(優)수(秀)한(한) 자), 명(明)경(經) (경(經)전(典)에 통(通)달(達)한(한) 자), 현(賢)량(良)방(方)정(正) 등(等)이니 주(主)로 유(有)학(學)에서 중(中)시(示)하는 것(것)들(들)이다. 하지만 찰(察)거(거)나 징(懲)벌(罰)은 기본적으로 문제(文帝)가 많은 제도(制)였다. 우선 추천(薦)자의 안(安)목(目)도 문제(文帝)가 거(거)니와 팔(八)은 안(安)으로 굽(굽)는(는)다고 추천(薦)하는 이들이 주(主)로 추천(薦)자의 주변(周)인(人)일(일) 경우(경우)가 허(許)다(다)했(했)기 때문(때문)이다. 그래서 '수(守)재(才)로 천(天)거(거)된(된) 이(이)가 글(글)을 알(알)지 못(못)하고, 효(孝)렴(廉)에 선(選)발(發)된(된) 이(이)가 부모(父)모(母)와 별(別)거(거)하며, 청(淸)결(潔)백(白)하(하)는(는) 이(이)가 진(進)출(出)처(處)를 때(때) 묻(묻)고, 훌륭한 장(將)수(守)라는(는) 이(이)가 닭(雞)처럼 겁(怯)이 많(多)았다.' ('포(朴)박(朴)자(子)·심(審)거(거)舉(舉)') 오(오)족(族)했(했)으면 조(趙)조(趙)가 "오(吾)적(積) 재(才)주(主) 있는(는) 사(士)를 천(天)거(거)하(하)라(라) (唯(唯)才(才)是(是)舉(舉))."고 했(했)겠(겠)는가? 이(이)를 대(代)체(代)한(한) 것(것)이 구(九)품(品)중(中)정(正)제(制)九(九)品(品)中(中)制(制)이다. 조(趙)비(比)췌(僞) 때(때) 시(施)행(行)하여 위(魏)진(晉)남(南)북(北)조(朝) 때(때)까(까)지(지) 계속(繼)속(續) 이어(繼)진(進) 선(選)발(發)제(制)도(도)로 중(中)정(正)이(이)란(란) 기(基)구(構)를 만(만)들(들)어 덕(德)행(行)이나 문(文)벌(罰)을 고(考)려(려)하여 인(人)재(才)의 품(品)을 정(定)하여 관(官)리(理)로 선(選)발(發)하는 제(制)도(도)이다. 하지만 이(이) 역시 추천(薦)자(者)가 문제(文帝)가 되(되)지 않(不)겠(겠)는가? 결(結)국(國) "상(上)품(品)上(上)品(品)에(에) 한(한)문(門)塞(塞) (미(未)친(親)한(한) 집(집)안(안))이 없(없)고, 하(下)품(品)下(下)品(品)에(에)는(는) 권(權)문(門)塞(塞)이(이) 없(없)다."는 지(智)경(景)에 이(이)르고 말(말)았다.



관리 추천제의 덕목 중 하나인 효렴(孝廉)방정(方正) 등이 주(主)로 유(有)학(學)에서 중(中)시(示)하는 것(것)들(들)이다. 하지만 찰(察)거(거)나 징(懲)벌(罰)은 기본적으로 문제(文帝)가 많은 제도(制)였다. 우선 추천(薦)자의 안(安)목(目)도 문제(文帝)가 거(거)니와 팔(八)은 안(安)으로 굽(굽)는(는)다고 추천(薦)하는 이들이 주(主)로 추천(薦)자의 주변(周)인(人)일(일) 경우(경우)가 허(許)다(다)했(했)기 때문(때문)이다. 그래서 '수(守)재(才)로 천(天)거(거)된(된) 이(이)가 글(글)을 알(알)지 못(못)하고, 효(孝)렴(廉)에 선(選)발(發)된(된) 이(이)가 부모(父)모(母)와 별(別)거(거)하며, 청(淸)결(潔)백(白)하(하)는(는) 이(이)가 진(進)출(出)처(處)를 때(때) 묻(묻)고, 훌륭한 장(將)수(守)라는(는) 이(이)가 닭(雞)처럼 겁(怯)이 많(多)았다.' ('포(朴)박(朴)자(子)·심(審)거(거)舉(舉)') 오(오)족(族)했(했)으면 조(趙)조(趙)가 "오(吾)적(積) 재(才)주(主) 있는(는) 사(士)를 천(天)거(거)하(하)라(라) (唯(唯)才(才)是(是)舉(舉))."고 했(했)겠(겠)는가? 이(이)를 대(代)체(代)한(한) 것(것)이 구(九)품(品)중(中)정(正)제(制)九(九)品(品)中(中)制(制)이다. 조(趙)비(比)췌(僞) 때(때) 시(施)행(行)하여 위(魏)진(晉)남(南)북(北)조(朝) 때(때)까(까)지(지) 계속(繼)속(續) 이어(繼)진(進) 선(選)발(發)제(制)도(도)로 중(中)정(正)이(이)란(란) 기(基)구(構)를 만(만)들(들)어 덕(德)행(行)이나 문(文)벌(罰)을 고(考)려(려)하여 인(人)재(才)의 품(品)을 정(定)하여 관(官)리(理)로 선(選)발(發)하는 제(制)도(도)이다. 하지만 이(이) 역시 추천(薦)자(者)가 문제(文帝)가 되(되)지 않(不)겠(겠)는가? 결(結)국(國) "상(上)품(品)上(上)品(品)에(에) 한(한)문(門)塞(塞) (미(未)친(親)한(한) 집(집)안(안))이 없(없)고, 하(下)품(品)下(下)品(品)에(에)는(는) 권(權)문(門)塞(塞)이(이) 없(없)다."는 지(智)경(景)에 이(이)르고 말(말)았다.

사가 관(官)리가 되는 것(것)도 어렵(難)지만 사(士)를 제(制)대로 선(選)발(發)하는 일(일) 또한 심(心)히 어(어)려(려)했다.

<심(審)규(圭)호(浩)·제(制)주(周)국(國)제(制) 석(石)좌(佐)교(교)수(守)>

**취 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 병 수**  
(탐(探)동(洞)365(五)일(日)의(義)원(源) 원(院)장(長))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중학교 35회 동창회**  
회장 한 정 권 외 회원일동

**취 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 병 수**  
(탐(探)동(洞)365(五)일(日)의(義)원(源) 원(院)장(長))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  
회장 정 우 철 외 회원일동

**취 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

**장 태 범**  
(태(泰)웅(雄)중(中)합(合)건(建)설(設) (주) 대(代)표(表)사(士))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회장 양 광 순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회장 허 상 우  
서귀포시골프협회 회장 양 문 석

**승 진**  
**지방사무관**

**문 여 환**

지방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촌형제일동**